

시즌6
제7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2021학년도 시준6 제7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21] 예술 융합(주제 통합형)

: 미술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서양 미술 - 미술사

미술사, 미학, 티체, 벤투리, 양식, 양식사가, 정신사가, 미술사가, 리글, 예술 의욕, 빌플린, 파노프스키, 도상 해석학, 전 도상학 단계, 도상학 단계, 도상 해석학 단계, 자연적 의미, 관습적 의미, 상징적 의미, 시대정신

* (가) 지문 분석

문단1 : 미술사는 무엇을 기술해야 하는가?

1) 미술의 역사, 즉 **미술사**란 각종 유파(= 생각이나 방법 경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이론 무리)나 예술가의 작품 활동에 관한 전기적, 역사적 서술인 것으로 여기기 쉽다.

⇒ 미술사도 어쨌든 ‘역사’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2) 그러나 **미적 감상의 대상**이자 **예술가의 정신**이나 **시대 상황** 등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인 개별 작품들을 다루는 만큼, 보통의 역사와 달리 미술사에서 무엇을 기술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있다.

⇒ 미술사를 그저 ‘보통의 역사’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있다는 얘기다.

[맥락 짚기] 지금부터 전자의 입장은 A로, 후자의 입장은 B로 표현해 보자. “미술사는 무엇을 기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A에 가까운 입장들은 ‘객관적 사실의 통시적 열거’라고 대답할 테고 B에 가까운 입장들은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는 정신적 가치’라고 대답할 거다.

3) 특정 양식에서 발견한 **이상적인 미**에 대해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

⇒ 이진 2)의 B에 가까운 입장일 테고

4) **일체의 가치 개입을 배제**하고[→ 예술가의 정신, 시대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료로서 작품 자체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실증주의적 서술을 해야 하는지 등이 그것이다.

⇒ 이진 1)의 A에 가까운 입장일 것이다.

5) 무엇보다 미술사를 바라보는 입장은 아름다움의 원리를 다루는 **미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 아무래도 A는 미술사와 미학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테고, B는 미술사와 미학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문단2 : 티체, 벤투리

1) **티체**는 A.경험적 탐구에 의존하는 미술사가 철학적 사변[→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논리적 사고만으로 현실을 인식하려는 일]을 중시하는 **미학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 뭐 예상대로다. ‘티체’는 A에 가까운 입장일 것이다.

2) A.객관적 사실과 같은 미술사가의 관심사는 물론 B.보편적 예술성의 표출과 같은 미학자의 관심사가 모두 개별 작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미술사와 미학이 혼재되어서는 안 되며 각기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 문단1-2)에서도 언급했지만 개별 작품에는 ‘예술가의 정신, 시대 상황’ 역시 담겨 있다. 다만 이진 ‘미술사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게 ‘티체’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개별 작품에 A, B가 모두 담겨 있더라도 미술사가는 A를 충실히 기술하면 되지, B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B를 기술하는 것은 ‘미학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3) 그는 다만 미술사를 기술할 때에 미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 뭐 그렇다고 미학에 대해 질색할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겠다.

4) 티체의 입장과는 **반대의 극단**[→ B에 가장 가까운 입장]에 서 있는 이로 **벤투리**가 있다. 그는 **작품과 관련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은 학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모름지기 학문이라면 개별 작품 안에 담긴 ‘보편적 예술성의 표출’까지도 기술해야 하는 만큼]

[맥락 짚기] ‘티체’가 A에 가장 가까운 입장이었다면 ‘벤투리’는 B에 가장 가까운 입장일 것이다.

5) 미술사 역시 미학 이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벤투리에게 있어 **미술사는 작품에 대한 미학적 비평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것**이다.

[Rew] 문단1-5)를 떠올려야겠다. A에 가장 가까운 ‘티체’는 미술사와 미학을 엄격히 구분하였다면 B에 가장 가까운 ‘벤투리’는 미술사와 미학을 사실상 구분하지 않았단다. 이런 양극단을 떠올려야겠다. 각각의 입장에 대응하는 표현들도 한번 정리해 보자.

티체 벤투리 A B	
A	B
• 가치 개입 배제 • 경험적 탐구 • 과학적 분석 • 객관적 사실의 나열	• 이상적인 미 • 철학적 사변 • 미학적 비평 • 보편적 예술성의 표출

문단3 : 양식사가, 정신사가

1) **대부분의 미술사가**는 사변적 미학[→ B의 극단인 ‘벤투리’]과 경험적 미술사[→ A의 극단인 ‘티체’]의 중간 지점을 취한다. 경험적 사료에 기초하되 경험 너머의 본질로서 미적 원리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맥락 짚기] 문단2에서 양극단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중간적인 입장들을 살펴보려나 보다.

⇒ 개별 작품에 ‘객관적 사실’과 ‘보편적 예술성의 표출’이 모두 담겨 있으니 양쪽 모두 적절히 살피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다. 다만

2) 미술사는 미적 본질을 **형식에서 찾는 전통**과 **정신에서 찾는 전통**으로 나뉜다.

⇒ ‘중간적인 입장들’ 중에서도 A에 더 가까운 입장[→ 양식사가]도 있고, B에 더 가까운 입장[→ 정신사가]도 있다는 얘기다.

3) 형식을 중시하는 **양식사로서의 미술사**[→ 양식사]는 **개별 작품들의 시각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추출한 **외적인 공통점인 양식**에 따라 고대,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 등 미술사의 시대를 구획하는 것을 중시한다.

⇒ A에 가까운 ‘양식사가’가 개별 작품에 담긴 **객관적 사실**로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기술하였다면

4) 반면 **정신사로서의 미술사**[→ 정신사]는 양식이라는 현상을 드러낸 원인으로서 **예술 의욕**이나 **시대정신** 등 예술 작품 형성의 **내적 원리**에 보다 주목한다.

⇒ B에 가까운 ‘정신사가’는 양식의 원인에 해당하는 ‘내적 원리’에 더 주목하여 미술사를 기술하였단다.

[Rew] 이때 ‘내적 원리’에 해당하는 ‘예술 의욕’과 ‘시대정신’은 각각 문단1-2)에서 언급한 ‘예술가의 정신’과 ‘시대 상황’에 관련된 개념들이겠다.

5) **정신사가**는 **양식사가**와 달리 미술의 역사가 미적 본질로서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발전적 과정**이라고 보고, 상징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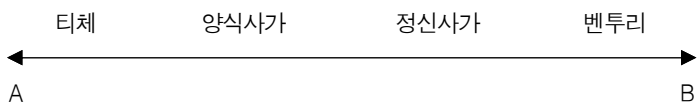
등으로 미술사를 구분한다.

⇒ ‘정신사가’ 입장에서 미술사는 ‘양식의 변화’를 기술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양식의 변화의 기저에는 ‘정신의 변화’가 있고, ‘정신의 변화’는 ‘이상적인 미’와 같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발전적 과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참조] 이때 ‘낭만주의’가 ‘고전주의’보다, 그리고 ‘고전주의’가 ‘상징주의’보다 발전한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자. 대표적인 정신사가인 ‘헤겔’의 경우 ‘고전주의’에서 이미 미술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6) 다만 정신사는 양식사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사는 양식의 변화가 정신의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할 뿐이다.

⇒ 한마디로 ‘정신사가’도 양식의 변화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그 원인(→ 정신의 변화)에 더 주목할 뿐이다.



* (나) 지문 분석

문단1 : 미술사 연구의 방법론

1) 미술사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미술사가들은 광학적 분석에서부터 문헌학적 연구, 개별 작품 간의 비교, 사회적 배경의 탐색 등의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

[Rew] (가)의 문단2-2)에서 설명한 대로 개별 작품에 ‘객관적 사실’은 물론 ‘보편적 예술성의 표출’ 역시 담겨 있기 때문에 미술사가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거다.

2) [미술사 연구의 방법론은] 미술사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는지에 따라 크게 B.정신사적 방법, A.양식사적 방법, 그리고 A+B.이들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맥락 짚기] (가)에서 확인한 ‘양식사가’와 ‘정신사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읽어 나가야겠다.

문단2 : 리글

1) B.정신사적 입장의 리글은 본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세우는 것에 미술사의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지역이나 시대별로 발견되는 양식 간 비교를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았다.

⇒ 여기까지만 읽으면 ‘객관적 사실’과 ‘양식’에 주목한 만큼 정신사적 방법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2) 그런데 그는 양식 분석에만 머물지 않고 양식을 이끈 내적 원리에 주목하여 정신사적 방법을 취하였다.

⇒ (가)의 문단3-6)에서 언급했다시피 정신사가 역시 ‘양식의 변화’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근거에 해당하는 ‘정신의 변화’에 더 주목할 뿐이다.

3) 그 내적 원리는 미적 충동으로서의 예술 의욕이다.

⇒ ‘리글’이 주목한 내적 원리는 정확히 ‘예술 의욕’이란. (가)의 문단3-4를 떠올려보면 훌륭하다.

4) 예술 의욕을 규명하는 리글의 방법론을 따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식물의 장식 문양처럼 보이는 특정 양식이 문화권과 시대를 초월하여 관찰되며 점차 발전해 가는데, ...

⇒ 이런 분석은 ‘지역이나 시대별로 발견되는 양식 간 비교’를 연구 방법으로 삼은 결과였다.

5) 그 원인이 바로 예술 의욕에 있다. 식물에서 발견되는 특정 형태가 인간에게 쾌감을 주어 예술 의욕을 불러일으켰고[→ 미적 충동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보편적 양식으로 정착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맥락 짚기] 결국 ‘리글’ 입장에서는 ‘예술 의욕’이야말로 미술사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라 할 수 있겠다. (가)의 문단3-4), 5)

의 ‘정신사가’에 대한 설명과 다르지 않다.

문단3 : 뵐플린

1) A.양식사적 입장의 뵐플린은 리글의 양식 분석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

[Rew] 주의하자. 문단2-1)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문단2-2)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2) B.예술 의욕을 포함해 작품 외적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 등 관찰 불가능한 것들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 이외의 것들을 배제하고] 작품의 형식, 즉 양식에만 주목하였다.

⇒ ‘리글’과 달리 ‘뵐플린’은 양식 분석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예상대로의 얘기다.

3) 그는 대상의 윤곽에서 전해지는 촉각적인 것과 색면에서 전해지는 시각적인 것의 대비를 리글로부터 수용하였고, ...

⇒ ‘뵐플린’은 이렇듯 관찰 가능한 객관적 사실만을 고려하였고

4) 이 대비를 통해 고전 미술과 바로크 미술의 양식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선적인 양식[→ 촉각적인 것]과 회화적 양식[→ 시각적인 것]의 대비가 그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양식 간의 객관적 비교만을 통해 시각 형식의 자율적 변화인 양식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양식의 변화를 설명하였다는 얘기가.

[맥락 짚기] 결국 ‘뵐플린’의 주장은 (가)의 문단3-3)의 ‘양식사가’에 대한 설명과 다르지 않다. 외적인 공통점인 ‘양식’에만 주목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는 얘기가.

양식사가	정신사가
• 가치 개입 배제 • 경험적 탐구 • 과학적 분석 • 객관적 사실의 나열 • 시각적 특성 • 양식의 변화	• 이상적인 미 • 철학적 사변 • 미학적 비평 • 보편적 예술성의 표출 • 내적 원리 • 양식의 변화+정신의 변화 • 예술 의욕, 시대정신

문단4 : 파노프스키

1) 파노프스키는 이러한 A.양식사적 방법과 B.정신사적 방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종합하여 세 단계로 이루어진 도상 해석학을 미술사의 방법으로 정립하였다.

[맥락 짚기] 문단2에서는 ‘정신사적 방법’을, 문단3에서는 ‘양식사적 방법’을 살펴봤다면 문단4에서는 이 둘을 종합하는 방법을 살펴볼려나 보다.

2) 세 단계 중 A.전 도상학 단계에서는 관찰에 입각하여 양식이나 분위기 등 객관적으로 지각되는 특성을 자연적 의미로 파악한다.

⇒ ‘전 도상학 단계’는 관찰 가능한 객관적 사실만을 관찰하는 ‘양식사적 방법’을 수용한 단계였다. 문단3의 ‘뵐플린’을 떠올리자.

3) 파노프스키는 작품 속의 양식은 예술가의 미적 선택 행위에 의한 표현 의지가 반영된 것이므로 뵐플린처럼 양식 분석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보았다.

[Rew] ‘양식사적 방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가. (가)의 문단1-2)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개별 작품에는 ‘예술가의 생각’[→ 표현 의지]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노프스키’는

4) 그래서 그는 B.도상학 단계에서 해당 작품이나 그것이 제작된 시대와 관련한 각종 문헌 등을 탐구하여 작품에 담긴 관습적 의미를 파악한다. 이는 작품에 담긴 정신적 내용이나 예술 의욕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다음 단계에서 ‘객관적 사실’을 넘어 ‘보편적 예술성의 표출’을 분석하였었다. ‘도상학 단계’는 ‘정신사적 방법’을 수용한 단계였다. 문단2의 ‘리글’을 떠올리자.

5) 파노프스키는 작품에 대한 분석이 리글의 분석과 같이 지극히 심리적인 충동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Rew] ‘정신사적 방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사실 ‘도상학 단계’까지는 기존의 정신사적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단2-1), 2)에서도 ‘내적 원리’를 주목하지만 ‘양식 분석’ 역시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6) 도상 해석학 단계에서, 앞선 두 단계[→ 전 도상학 단계, 도상학 단계]의 해석 내용을 종합하되 더 나아가 작품의 내재적 의미로서의 상징[→ 상징적 의미]을 파악한다.

[맥락 짚기] 결국 ‘도상 해석학 단계’야말로 ‘리글’이나 ‘뵐플린’과 구분되는 ‘파노프스키’만의 특징이겠다. ‘자연적 의미’와 ‘관습적 의미’를 종합하여 ‘상징적 의미’로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자연적 의미 + 관습적 의미 → 상징적 의미

7) 이 상징적 의미는 예술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의지’와 무관하게] 작품에 담길 수밖에 없는 초역사적인 예술 의지인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주목] 예술가의 미적 선택 행위에 의한 표현 의지가 반영된 ‘관습적 의미’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가)의 문단3-4를 떠올렸다면 훌륭하다. ‘리글’이 특정 양식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예술 의욕’ 때문이라고 보았다면 ‘파노프스키’는 ‘시대정신’ 때문이라고 보았다는 얘기다.

8) 파노프스키는 이러한 방법론을 따를 때 보편타당한 작품의 의미에 대한 기술로서의 미술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그렇단다. 마지막으로 ‘파노프스키’의 방법론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겠다.

전 도상학 단계 (A.양식사적 방법) → 도상학 단계 (B.정신사적 방법) → 도상 해석학 단계 (A + B)



[22~26] 현대시 : (가) 오장환, 「병실」

* 작품 평가

일제 강점기, 세상은 암울하고 답답한데 젊은 나이에 병까지 들어 여러 날을 입원한 상황을 상상해 보자.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으니 더욱 답답할 것이다. 병실에 갇혀 자유를 잃은 시적 화자는 병실 안팎의 여러 대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마음으로는 현실의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시인의 정서를 생각하며 읽는다면 시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작품 분석

제1연

양어장 속에서 갓 들어온 금붕어

어항이 무척은 신기한 모양이구나.

⇒ 양어장에서 금붕어를 새로 사와서 병실에 있는 어항에 넣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금붕어가 낯선 어항 속을 신기하게 여길 것 같다는 것은 시적 화자의 생각이다.

⇒ 병실 속 좁은 어항은 답답하고 병든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양어장을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양어장은 시인이 길들여지듯 살아가야 했던 일제 강점하의 식민지 현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제2연

병상의 검온계(檢溫計, 체온계)는

오늘도 삼십구 도를 오르내리고[→ 시적 화자가 여러 날을 계속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릿느릿한 맥박과 같이[→ 활력을 잃은 화자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유리 항아리[→ 어항]로 피어오르는 물방울

금붕어는 아득—한 꿈길을 모조리 먹어 버린다.

⇒ 화자는 금붕어가 빠끔거리며 어항 속의 물방울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병실에 누운 채 오래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꿈조차 차츰 잃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즉, ‘금붕어’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인 오장환은 젊은 시절 조선의 독립에 열정적으로 투신하고자 했지만 건강 문제로 그 뜻을 실현하지 못했고, 그것을 두고두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제3연

먼지에 끼은 초상(肖像)[→ 먼지가 오래 쌓이면서 어두운 색으로 색이 변한 초상화]과 마주 대하여[→ 병실 벽에 먼지 쌓인 초상화가 실제로 걸려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병실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서 시적 화자의 모습이 마치 먼지 쌓인 초상화처럼 무기력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림자를 잃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존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림자를 잃었다는 것은 존재감마저 상실한 상태를 뜻하는데,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있다] 청자(靑磁)의 화병(花瓶)이 하나

오늘도 시든 카—네손[→ 생명력을 잃어가는 무기력한 모습]의 꽃다발을 뺏어 버렸다.[→ 화병이 카네이션을 뺏아 버렸다고 했다. 시들어가는 생명이나마 품어서 간직하지 않고, 그 생명을 거부하고 있다. 시적 화자가 병실에서 느끼는 감정 상태와 정서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다. 자신의 병이나 시대적 현실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제3연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벽에 낡은 초상화가 걸려 있고, 화병

근처에 시든 꽃다발이 흩어져 있는 메마르고 활기 없는 병실 풍경을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풍경은 곧 화자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화자는 정물화와 같은 묘사를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제4연

유현(幽玄, 이치나 아취가 알기 어려운 정도로 깊고 그윽하며 미묘한)한 꽃향기를 입에 물고도

충충한(=물이나 빗발 따위가 흐르고 침침한) 먼지와 회색의 기억밖에는[→ 기억밖에 없는]

이그러지고도 파리한 얼굴.[→ 시적 화자 자신의 얼굴. 병실의 대상을 관찰하던 시선이 스스로에게로 향했다. 이지러지고 파리하다는 것에서 몸이 병들고 마음 역시 우울하고 답답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제4연은 제3연에서 묘사한 ‘청자의 화병’에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겹쳐서 상상한 모습이다.

⇒ 한 때 품고 있었던 ‘꽃향기’를 잃어버린 채, 이제는 먼지로만 덮여 있는 청자 화병의 상태에 화자는 자신을 겹쳐 봄으로써 과거에는 아름다운 이상[→ ‘꽃향기’]을 지녔지만 이제는 실의와 절망의 기억만 남아[→ ‘먼지와 회색의 기억밖에는’] 있는 자신의 일그러지고 찢기 없는 얼굴[→ ‘이그러지고도 파리한 얼굴’]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제5연

금붕어는 지금도 어느 꿈길을 따르는가요[→ 제2연에서 ‘금붕어’가 ‘먹어 버린다’고 한 ‘아득—한 꿈길’이 여기서는 ‘따르는’ ‘어느 꿈길’로 바뀌었다. ‘꿈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따라야 할 길로 남아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겉으로는 ‘금붕어’에 대한 물음처럼 보이지만 ‘금붕어’를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자가 스스로에게 추구하는 꿈이 있는가를 반성적으로 되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책갈피에는 청춘이 접히어 있고[→ 아마도 화자는 병실에서 읽던 책을 다시 보았을 게다. 그러면서 화자는 그 책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자신의 젊은 날을, 즉 건강한 모습으로 이상을 추구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는가 보다.]

창밖으론 포도 알들이 한데 몰리어 파르르 땀니다.[→ 화자는 병실 밖의 ‘포도 알들’을 바라보고 있다. ‘파르르’에서 환기되는 열은 색감과 여리고 가냘픈 움직임은 병약한 몸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는, 그렇게 나약해 보이지만 싱그러움을 잃지 않는 ‘포도 알들’이 ‘한데 몰리어’있는 모습과 대비되어 동무들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제4년까지가 답답한 관찰자의 어조였다면 제5연에서는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고백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화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금붕어’, ‘책갈피’, ‘포도 알들’의 이미지와 결부하여 요약하고 있다. 즉, 건강했을 때의 기억만을 아쉽게 간직한 채[→ ‘책갈피’] 현재의 병든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포도 알들’] 자신이 꿈마져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있는 것이다.[→ ‘금붕어’]

[27~30] 인문 : 하만의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서양 철학 - 논리학

귀납적 일반화, 귀납 논증, 하만, 가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흄, 타가드, 통섭성, 설명력, 단순성, 보조 가설, 중심 가설

* (가) 지문 분석

문단1 : 귀납적 일반화

1) **귀납적 일반화**란 '많은 까마귀들이 검다.'라는 관찰 사실로부터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처럼, 'A인 많은 대상들이 B이다.'라는 관찰 사실에 관한 진술 P를 토대로 '모든 A는 B이다.'라는 결론 C를 추론하는 것이다.

⇒ A에 '까마귀'를, B에 '검다'를 대응해서 읽으면 되겠다. '많은 까마귀'와 '모든 까마귀'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 '귀납적 일반화'는 그 간극을 좁히는 추론인 게다.

2)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증인 **귀납 논증**들이

[참조] 논증이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제'와 그 '결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주장을 가리킨다. 따라서 논증이라면 전제와 결론을 갖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귀납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필연적으로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한다.

3) 모두 귀납적 일반화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귀납적 일반화로 표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귀납적 일반화는 가장 기초적인 귀납 논증이라 여겨져 왔다.

⇒ 한마디로 모든 '귀납 논증'은 결국 '귀납적 일반화'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귀납적 일반화'야말로 가장 일반화된, 기초적인 귀납 논증이라는 얘기다.

4) 그런데 **하만**은 관찰 사실에 관한 진술로부터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 최선의 설명인] **가설**을 도출하는 추론인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 가장 기초적인 귀납 논증이며, ...

⇒ 이와 달리 '하만'은 모든 귀납 논증이 '귀납적 일반화'가 아니라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만

5) 귀납적 일반화의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것을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맥락 짚기]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 역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옮겨져야겠다.

문단2 :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1) **흄**은 귀납적 일반화에서 결론 C에 대한 진술 P의 **개연적 뒷받침** 관계 [→ 문단1-2)]는 사실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P로부터 C로의 추론은 그저 우리의 사유 습관일 뿐이라고 보았다.

[맥락 짚기] '귀납적 일반화'에 대한 '흄'의 비판이다.

⇒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관찰한 많은 까마귀들이 검었으니까, 아직 관찰하지 못한,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모든 까마귀들도 틀림없이 검을 거야."라는 진술을 이끌어 내는 귀납적 일반화의 추론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사유 습관에 불과하다는 게 '흄'의 지적이다.

2) 이와 달리 **하만**은 우리가 귀납의 과정에서 '속성 A와 속성 B 간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설'에 의해 관찰된 사실들이 가장 잘 설명된다.'라는 전제를 덧붙여 결론 C를 추론한다고 보았다.

[주목] '귀납적 일반화'와 달리 하만이 제시하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은 새로운 전제를 하나 더 포함하고 있다. 문단1-4)를 함께 떠올리면서 읽었다면 더욱 훌륭하다.

3) 이때의 가설[→ '속성 A와 속성 B 간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결국 '모든 A는 B이다.'와 같다.

[Rew] 주의하자.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에 추가된 전제에 담긴 가설은 문단1-1)의 '귀납적 일반화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를 '가설 H'라고 부르자. 따라서 '귀납적 일반화'는 결국

4) 이렇게 보면 귀납적 일반화는 '어떤 현상이 관찰된다.'라는 진술 [→ 관찰 사실에 관한 진술, 전제 1]과 '가설 H가 그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다.'라는 진술[→ 전제 2]로부터 '가설 H가 참이다.'라는 진술을 도출하는, 즉 가설 H를 결론으로 도출하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파악될 수 있는 셈이다.

⇒ 이런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문단1-1)의 예시로 다시 풀어내면 아래와 같다.

- 전제 1 : '많은 까마귀들이 검은 현상'이 관찰된다.
- 전제 2 : '많은 까마귀들이 검은 현상'은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가설[→ 가설 H]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 결론 : 모든 까마귀는 검다.

[맥락 짚기] '하만'에 따르면 이렇듯 '귀납적 일반화'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 즉 문단1-4)의 설명대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귀납 논증이라는 얘기가.

하만 이전	모든 귀납 논증 → 귀납적 일반화 ∴ 가장 기초적인 귀납 논증 = 귀납적 일반화
하만의 주장	귀납적 일반화 →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 가장 기초적인 귀납 논증 =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문단3 : 귀납적 일반화에 대한 하만의 해석

1) 이러한 하만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속성 A[→ 까마귀]와 속성 B [→ 검다] 간의 관찰된 상관성[→ '많은 까마귀가 검다.']을 앞으로 관찰될 다른 대상이나 모든 대상들[→ 모든 까마귀]에 단순히 습관에 의해 투사하는 것[→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귀납적 일반화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

⇒ 한마디로 '귀납적 일반화'를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문단2-1)의 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2) 관찰 사실을 설명하는 가설들 중 가장 좋은 가설[→ 최선의 가설]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귀납적 일반화에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많은 까마귀가 검은 현상'[→ 전제 1]을 설명하는 수많은 가설들이 있을 수 있겠다. '다른 색의 까마귀는 태어나자마자 죽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까마귀가 검은 것이다.'라든지, '사실 까마귀들의 색은 다양한데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의 시야를 흐려 놓아서 전부 검게 보이는 것이다.'라든지

⇒ 하지만 아무래도 역시 '모든 까마귀가 검기 때문에 많은 까마귀가 검은 것이다.'라는 가설을 최선의 설명으로 선택[→ 전제 2]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귀납적 일반화'는 충분히 타당하다는 게 하만의 주장이겠다.

[참조] 다만 합리적인 추론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귀납적 일반화의 결론이 필연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가설은 관찰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뿐이지 그 자체로 필연적 참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3) 나아가 어떤 설명이 좋은 설명인지 그 기준을 밝히고, 그에 따라 가설을 선택한다면 귀납적 일반화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귀납적 일반화'는 '모든 A는 B이다.'라는 가설이 가장 좋은,

최선의 설명으로 선택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졌을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다.].

[**맥락 짚기**] 좋은 설명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두 문단에서 살펴 보게 될 게다.

문단4 : 타가드의 판별 기준 1 - 통섭성

- 1) 이와 관련하여 타가드는 좋은 설명인지 혹은 좋은 가설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통섭성과 단순성을 제시하였다. 통섭성은 가설이 얼마나 다양한 영역의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맥락 짚기**] ‘타가드’가 제시한 좋은 설명의 첫 번째 기준이다.

⇒ 한마디로 더 다양한 영역의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곧 좋은 가설이란단.

- 2) 이[→ 통섭성]는 많은 사실들을 설명하는 힘인 [**설명력**]과 유사하지만 사실들의 수가 아니라 사실들의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영역에서 많은 사실들을 설명하는 가설보다[→ ‘설명력’이 큰 가설보다]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사실들을 설명하는 가설이 더 큰 통섭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주목**] 예를 들어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가설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환경의 1,000마리의 까마귀가 검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통섭성이 커서] 좋은 가설인 것이지만, 한 나라의 1,000,000마리의 까마귀가 검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력이 커서] 좋은 가설인 것이 아니다.

- 3) 가령 뉴턴 역학은 통섭성이 큰데, 이는 시간에 따른 화성의 여러 위치들[→ ‘행성의 위치’라는 한 영역의 많은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라기보다 행성의 위치뿐 아니라 조수 간만의 차[→ 또 다른 영역의 사실]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통섭성’과 ‘설명력’의 차이를 보여 주는 좋은 예시다.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다양할수록 더 타당한 가설일 것 같다.

- 4)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귀납적 일반화의 전제[→ 대전제]에서 두 속성들 간의 상관성을 보여 주는 사례들의 개수가 많은 것[→ 설명력이 큰 대전제]보다 사례들의 다양성이 큰 것[→ 통섭성이 큰 대전제]일수록 더 좋은 귀납 논증이다.

⇒ 뭐 그렇겠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가설이 설명하는 사례들의 다양성 ↑ ⇨ 통섭성 ↑

문단5 : 타가드의 판별 기준 2 - 단순성

- 1) 우리는 관찰 사실을 설명할 때 가설뿐 아니라 보조 가설들도 동원하는데, 타가드는 동원되는 보조 가설의 수가 적을수록 본래의 가설인 중심 가설이나 설명이 더 단순해진다고 본다.

⇒ ‘보조 가설’의 수가 적을수록 ‘단순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아무래도 단순성이 커야 좋은 설명일 것 같다.

보조 가설의 수 ↓ ⇨ 단순성 ↑

- 2) 그런데 통섭성을 크게 하려면[→ 중심 가설이 더 다양한 영역의 사실들을 설명하려면] 보조 가설을 늘려야 하고, 이는 단순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 ‘통섭성’을 확보하려면 ‘단순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고 ‘단순성’을 확보하려면 ‘통섭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 3) 예컨대 이미 폐기된 가설인 플로지스톤 이론에 따르면 물체가 탈 때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이 방출된다[→ 결론]. 그런데 이 이론으로는 연소하는 물체의 무게가 증가하는 현상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통섭성이 지나치게 낮아서] [통섭성을 크게 하려면] 플로지스톤이 음의 무게를 가진다는 보조 가설을 동원해야만 했다[→ 단순성을 낮춰야 했다.].

⇒ ‘통섭성’과 ‘단순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좋은 예시다. 그대로 읽어

주면 되겠다.

- 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조 가설의 수를 줄이면서[→ 단순성도 크면서]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사실들을 설명하는 중심 가설[→ 통섭성도 큰 중심 가설]이 가장 좋은 가설이다.

[**참조**] 문단4를 고려했을 때 이런 이해도 가능하겠단. 결국 ‘플로지스톤 이론’이 보조 가설의 수를 늘려야 했던 것은 중심 가설이 충분한 ‘통섭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모든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영역’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좋은 중심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겠다.

∴ 통섭성이 큰 중심 가설 + 보조 가설의 수 ↓ = 좋은 설명

[**주목**] 결론 자체는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문단3-3)에서 강조한 대로 왜 ‘모든 A는 B이다.’라는 가설이 가장 좋은 설명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단. 즉 ‘A인 많은 대상들이 B이다.’라는 사실을 ‘모든 A는 B이다.’라는 가설로 설명하는 것은 다른 가설들에 비해 ‘통섭성’은 물론 ‘단순성’도 크기 때문에 최선의 설명이 되는 게다.

문단6 : 하만과 타가드의 의의

- 1) 이처럼 하만과 타가드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을 통해 귀납적 일반화의 작동 방식을 보여 주었다.

⇒ ‘하만’은 귀납적 일반화를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표현함으로써 귀납적 일반화의 합리성과 작동 방식을 보여 주었고, ‘타가드’는 작동 과정에서 왜 ‘모든 A는 B이다.’가 최선의 설명인지를 보여 주었다.

- 2) 그들의 논의는 귀납 논증이 증거와 가설 간의 관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관찰 사실과 하나의 가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증거와 서로 경쟁하는 가설들 간의 관계에 관련된 것임을 보여 줌으로써[→ 그 가설이 관찰 사실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 중에서 최선의 가설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거쳤음을 보여 줌으로써] 귀납 논증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 납득할 수 있는, 멋진 마무리다.

[31~33]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수록 지문 평가

이 작품은 17세기에 지어진 장편 소설이다. 여러 집안 출신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방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 한눈에 작품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로 작품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가문이 혈연이나 혼인, 우정과 갈등으로 얽히고설킨다는 점에서 가문 소설, 자유연애가 허용되지 않던 시대이긴 하지만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담은 애정 소설, 정의로운 군자가 이익을 탐하는 소인배에게 몰려 패할 것 같은 상황에 빠졌다가 다시 본래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정치 소설, 적과 싸워 이기고 나라를 구한다는 점에서 영웅 소설의 성격도 있고, 효와 우애가 결국 승리한다는 윤리 소설의 면모도 지닌다. 따라서 이처럼 복잡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관직을 정리하고 그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 놓고 읽으면 작품 이해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 사실 호칭만 정리해 두어도 헷갈리는 걸 크게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주인공 ‘화진’은 이름인 ‘진’이나 자(字)인 ‘형옥’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냥 ‘공자’라고 불리다가도 관직인 ‘한림’이나 ‘대원수’, ‘진국공’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무튼 이 몇 가지 어려움만 넘기면, 작품이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한다.

* 수록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 화옥]가 죽자 어머니 심 씨와 화춘은 고모 성 부인[→ 화옥의 누님인데, 태상경 성염과 혼인했으므로 ‘성 부인’이라 불린다. 남편이 죽은 뒤, 아들 성준과 함께 동생의 집에 와서 지낸다.]의 눈을 피해 이복동생 화진과 화빙선을 꾀박한다.

토막1 : 모친의 부덕을 누설했다는 죄로 춘이 진을 매질함

춘이 말하되,

“진의 남매 마음가짐을 소자도 일찍 알았으나, 고모와 한통속이 되어 있으니 쉽게 제압하기 어렵고, 빙선의 정혼자 유생[→ 빙선과 혼인을 약속한 유성양]이 이 일을 알고 기색이 좋지 않으며, 또 고모님이 머잖아 환귀(=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하신다 하오니 후일을 기다리소서.”

⇒ 성 부인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화옥이 죽은 뒤에도 집안에서 발언권이 가장 세다. 화옥의 유언에 따라, 화진과 화빙선 남매를 각 별히 보살피고 있으므로 성 부인이 있는 동안에는 심 씨와 화춘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들을 괴롭히지는 못한다.

심 씨 뛰며 발악 왈,

“성가의 늙은 과부가 내 집에 웅거(=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굳게 막아 지킴)하여 의사 음흉하니 필경 우리 모자를 죽이려 할 것이니, 내 비록 잔약(= 가냘프고 약함)하나 사생을 결단할 것이라. 또 유생은 다른 집 자제로 어찌 남의 집안일을 알리오. 이는 진이 나의 부덕(不德)을 누설함이라. 내 이 분함을 풀지 못하면 네 앞에서 자결하리라.”

⇒ 자식 앞에서 자결을 운운할 정도니, 심 씨가 얼마나 표독한 인물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이 말은 아들 춘으로 하여금 아우 진을 벌하도록 압박하는 구실도 한다.

하니, 춘이 마지못해 진을 끌어내어 난장(= 신체의 부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매로 치던 고문)을 치거늘, 공자 이미 어미와 형을 달리 어찌할 수 없을 줄 알고 일언의 변명이 없다가 혼절하니,[→ 부당한 매질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견디는 공자의 효심과 우애를 보여 준다. 이는 한편으로 어머니와 형의 지시를 거역하지 않으려는, 가정 내의 위계질서를 지키려는 모습이기도 하다.] 심 씨가 중문 밖에 공자를 내치거늘, 춘의 아내 임 소저가 몇 종의 약물로 구호(= 병자나 부상자를 간호하거나 치료함)하고 하늘에 빌어 가로되,

“하늘이 진실로 화씨 가문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면 이 몸으로 공자의 명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니,[→ 임 소저는 시어머니 심 씨나 남편인 춘과는 달리 올바른 품성을 지닌 인물이다.] 공자 과연 생도(生道, 살아가는 방도)를 얻더라.[→ 기절했던 공자가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다는 거다.]

그 후 동성의 성 추관[→ 성 부인의 남편 성염의 아우. 벼슬에서 물러나 동성 옛집으로 돌아온 뒤 형수인 성 부인을 뵙고 싶어 자기 집으로 청해 모시고 있었다.] 덕 하인이 성 부인의 서간을 공자와 소저에게 드리며 안부를 탐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냄)하거늘, 춘이 대경(= 크게 놀람)하여 공자의 답서를 보고자 진의 처소에 이르니, 공자 매 맞고 쫓겨난 후로 가형(家兄) 면목(= 얼굴)을 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던 중 천만의외에 형을 보고 심중이 희열하여 가진 죄가 매우 많다 하고 통곡하니 무도한 춘도 오히려 감동하더라.

⇒ 화춘은 심 씨와 자신의 악행을 성 부인에게 이르지나 않는지 두려운 거다. 하지만 진(공자)의 사람됨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형을 오히려 그리워하며 통곡할 만큼 착하기 그지없다. 진의 선함으로써 악한 춘을 감화시키는 거다.

[중략 부분 줄거리] 진이 급제하여 한림 벼슬에 오른 후, 춘의 새 아내 조 씨는 불람배 범한과 흥계를 꾸며 진에게 심 씨와 춘을 살해하러 했다는 누명을 씌운다. 심 씨는 춘에게 진을 관아에 고발하게 하고, 범한은 춘의 고소장 작성을 돕는다.

토막2 :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러 했다는 누명을 씌워 춘이 한림을 고소함

범한이 고장(告狀, 고소장)을 소매 속에 넣고 내가 가지 않으면 일이 잘되지 않으리라 하고 관부(官府)로 찾아가 고장을 올리니, 지부(知府) 최형은 일찍이 화씨 집안의 잔치 자리에서 한림을 한 번 보고 애모(= 사랑하여 그리워함)하기를 잊지 아니하였다가 고장을 보고 탄식하며 이것이 반드시 무고(=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하던 중에[→ 최형은 한림이 죄 없다고 확신하는 거다.] 한림이 아전을 따라 들어왔거늘, 최 지부 고장에 따라 물을새 범한이 계단 중간에 서 있는지라. 한림이 지부의 문목(問目,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을 듣고 비로소 집에 변괴(= 이상야릇한 일이나 재변)가 일어난 줄 알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모두 운명인데 내 만일 문목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형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 어머니와 형이 무고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실토할 생각인 거다.

하고 지부의 물음에 대답 왈,

“이 일이 사실이라. 이미 죄 드러났으니 죽을 뿐이로소이다.”

최 지부 이 말을 듣고 길게 탄식하며 한림더러 일러 왈,

“죄인의 사정이 딱하도다. 어미 고장을 효자가 어찌 부인하리오.[→ 고소장에 적힌 혐의를 부인하면, 고소한 ‘어미’는 거짓말로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으려 했다는 혐의를 쓰게 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다.] 그러나 한 나라 때 동해의 효부가 무복(誣服, 강요에 의하여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함)하여 죽은 후 삼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태수는 천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악명을 받았으니, 이제 최형이 너무 억울하지 아니한가?”[→ ‘그대가 무복하여 하늘이 노하기라도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게 욕을 먹지 않겠는가’라는 뜻이겠다. 한림으로 하여금 거짓 자백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는 거다.]

범한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대언하여 왈,

“죄인이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자복하거늘 이제 형을 집행할 따름인데 어찌 곡설(曲說, 한쪽으로 치우쳐 바르지 못한 이론)로써 말을 바꾸고자 하나뇨.”

최 지부 대로(大怒)하여 범한을 끌어 내려 꾸짖기를,
 “너는 성이 범가인데 어찌 화씨 집안의 일에 관여하여 말이 많은가.”
 하고, 범한을 끌어내고 한림은 하옥하니, 범한은 은자(銀子)를 옥졸들에게 주어 옥중의 한림을 모해코자 하더라.[→ 한림이 옥 안에 있는 동안 해치라는 뜻으로 뇌물을 준 거다.]
 그전에 한림의 유모 계화가 심 씨에게 축출되어 도로에서 방황하다가 부중(府中)에서 가장 부자인 유이숙의 처가 되었던니, 이때 계화가 한림이 하옥되었다는 말을 듣고 먹지도 아니하고 통곡하며 그 억울함을 밝히려고 관부 문 앞에서 자결하고자 하니,[→ ‘모친 살해미수죄’ 혐의로 감옥에 갇힌 화진을 위해 이전의 유모가 자결까지 하려 한다니, 이는 화진의 인품이 매우 어질고 훌륭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숙이 그 행동을 의롭게 생각하여 한림을 가서 보고 돌아와 분히 여기며 왈,
 “내 한림의 옥같이 맑은 용모를 보니 천하 군자라. 어찌 장부 되어 이런 사람을 위해 죽음을 아끼겠느냐.”
 ⇒ 한림을 위해 목숨까지 던지려는 아내 계화 때문에 한림을 직접 만나본 뒤, 한림의 인품에 감동을 받고 그 역시 한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다. 한림의 인품이 훌륭한 까닭에 그 감화력이 주변 사람에게로 점점 퍼져가고 있는 거다.
 하고, 옥졸들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 계화는 직접 한림에게 음식을 들고 이숙은 옥문에 앉아 지키니, 범한의 은자는 소용이 없게 되고 혹 범한이 옥문 밖에 나타나면 옥졸들이 구타하기에 감히 나타나지를 못하더라.
 ⇒ 유이숙과 계화는 범한보다 더 많은 뇌물을 써서, 한림이 옥중에 있는 동안 그를 해치려 했던 범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다.

* 참고 자료

작품 전체 줄거리

- 1) 명나라 세종 황제 때, 병부 상서 화옥은 첫째 부인 심 씨에게선 장자 화춘을, 둘째 부인 요 씨에게선 딸 태강 소저[→ 화빙선]를, 셋째 부인 정 씨에게선 차자 화진을 두었다. 화옥의 집에는 화옥의 만수이인 성 부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성준과 함께 살고 있다. 요 씨는 딸 태강을 낳고 일찍 죽는데, 죽으면서 딸을 정 씨에게 부탁하고 정 씨는 태강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 2) 화옥은, 어사 남표가 승상 엄송의 권력 농단을 탄핵하다 도리어 귀양가게 된 것을 보고 어지러운 조정을 걱정하는데, 아들 화진의 말을 듣고 벼슬을 사임하고 고향 소흥부로 돌아온다. 화옥은 평소 용렬하고 교만한 화춘을 ‘우리 집안을 망칠 자’라고 나무라는 반면, 어질고 영특한 화진은 ‘우리 가문을 일으킬 자’라고 칭찬하며 편애한다. 이 때문에 화춘과 그 어머니 심 씨는 불만을 품고, 화진과 정 씨뿐만 아니라, 정 씨가 보호하는 태강 소저도 시기하고 미워한다.
- 3) 화춘을 임 소저와 혼인시킨 화옥은, 몇 년 뒤, 사랑 윤혁의 딸 옥화와 윤혁의 양녀 남채봉을 화진과 정혼시킨다. 하지만 그해에 화옥과 정씨 부인은 갑자기 병을 얻어 죽고 만다. 이때부터 심 씨와 화춘의 악행이 시작되어 화진과 태강 소저를 옥하며 때리기도 한다. 그러나 화진과 태강 소저는 이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묵묵히 견디며 스스로를 닦을 뿐이다.
- 4) 이에 앞서, 귀양 가던 남 어사 부부는 엄송이 보낸 도적을 피하려고 물에 뛰어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도인 곽선공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뒤로 곽선공을 따라 깊은 산으로 숨어든다. 남 어사의 딸 채봉은 난리 통에 부모와 헤어지지만 선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그 뒤 아버지의 벗인 윤혁에게 몸을 의탁한다.
- 5) 삼년상이 끝나자, 화진은 윤 씨 집에 가서 윤옥화, 남채봉을 양 부인으로 맞아들여 혼인한다. 집으로 돌아온 화진은 과거에 장원 급제 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역시 급제하여 태수가 된 성준은 어머니 성 부인을 모시고 화씨 집을 떠난다.

- 6) 그 뒤로 심 씨와 화춘의 흉악한 짓이 날로 심해진다. 화춘의 첩으로 들어온 조월향은 정실 임 소저를 내쫓고 정실 자리를 차지한다. 또 화춘의 친구인 불량배 범한과 사통하고 작당하며 ‘불효와 못된 행실’을 내세워 화진을 무고하여 그의 벼슬을 빼앗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채봉을 소실로 주저앉힌다. 이어 채봉을 독살하지만,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던 여승 청원이 채봉을 살려 내고 함께 축으로 도망한다.
- 7) 범한이 채봉의 필적을 흉내 내어 화진과 채봉이 심 씨 모자를 죽이려 상의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는 화진을 살해범으로 몰아 소흥부에 고소한다. 화진은 심 씨 모자를 위해 모든 게 자기 죄라며 거짓 자백하고 옥에 갇힌다.
- 8) 장평이 화춘을 꼬드겨 옥화를 엄송의 아들 엄세번에게 시집보낼 계락을 내는데, 이를 알게 된 윤여옥[→ 옥화의 쌍둥이 남동생]은 여장하고 누이 대신 엄세번 집에 가서는 ‘화진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전에는 혼인할 수 없으며, 자결하겠다.’라고 위협하며 엄세번을 움직여 화진이 풀려나게 한다.
- 9) 화진은 윤여옥의 활약으로 사형을 면하고 성도로 귀양 가게 되며, 아내 채봉이 살아서 축으로 간 것도 알게 된다. 유배지인 서촉에서 화진은 우연한 계기로 곽선공과 함께 지내는 장인 남 어사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 채봉과 혼인한 사실과 채봉이 [독약을 먹고 죽었다가 살아나] 축에 도망한 사실을 알린다.
- 10) 화진은 산에서 우연히 만난 도인에게서 천서(天書)를 얻고 도술을 전수받는다. 이어서 황제의 명령으로 바다 도적 서산해를 무찌르는 전쟁에 백의종군하는데, 기막힌 작전으로 서산해를 물리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천자로부터 대원수에 제수된다. 화 원수는 서산해와 다시 대전을 치르고 결국 그를 사로잡는다. 이어 축의 채백관이 반역하자 황제의 명에 따라 축으로 가서 또 이들을 정벌한다.
- 11) 화춘은 장평 때문에 죄가 다 드러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조월향과 범한이 자기 집 금은보화를 훔쳐 달아난 것을 알게 된 심 씨는 그제야 후회하며 회개한다. 화춘 또한 크게 뉘우친다. 화춘이 투옥된 사실을 들은 화진과 태강 소저는 오히려 화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심 씨는 태강 소저에게 눈물로 사죄하며 착하게 살려고 한다.
- 12) 축 땅에서 채봉은 10년 만에 부모님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만, 자신을 괴롭힌 심 씨 모자를 탓하지 않는다. 모든 반란을 다스린 화진은 황성 가는 길에서 통정참의 벼슬을 제수받은 남 어사와 만나고 엄송이 황제로부터 의심을 받다가 끝내 재산을 몰수당한 소식도 듣고 채봉과도 해후한다. 이어 황제의 조서가 내려 옥화와 채봉은 각각 진국 부인과 조국부인에 봉해진다.
- 13) 개선한 대원수 화진이 황제 앞에서 화춘을 용서해 주십사 청하자, 황제가 화춘을 살려 준다. 풀려난 화춘과 심 씨가 화진에게 눈물로 사죄한다.
- 14) 조월향과 도망친 범한은 회개하기는커녕 끝내 화진을 죽이려며 자객을 사주했다가 도리어 자객에게 살해당하게 되고, 조월향과 시비 난수도 붙잡힌다.
- 15) 쫓겨난 임 소저와 옥화, 채봉이 화부에 돌아오고 성 부인까지 화부에 돌아옴에 따라 화진 가족은 모두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된다. 이들은 비로소 온전한 가족을 회복하고 영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34~38] 기술 : 정보 엔트로피의 정의와 활용 양상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정보 기술 - 정보 엔트로피

열역학적 엔트로피, 정보량, 정보 엔트로피, 교통 혼잡 추적 시스템, 속도 정보, 평균 시속

* 지문 분석

문단1 : 열역학적 엔트로피

1) 기체 분자들의 **열역학적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그 분자들의 상태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음을 뜻한다.

⇒ 표현이 어렵다. 그 기체 분자들의 상태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지

2) 기체 분자들이 한곳에 몰려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매우 적다.]보다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으므로,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의 열역학적 엔트로피가 더 높은 것이다.

⇒ 한마디로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즉 그 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을수록 '열역학적 엔트로피'는 높아진다.

경우의 수 ↑ ⇔ 확률 ↑ ⇔ 열역학적 엔트로피 ↑

3) 열역학적 엔트로피가 높은, 기체 분자들이 골고루 섞이는 쪽으로의 변화가 자연의 자발적인 변화 방향이다.

⇒ 그럴 것 같다. 아무래도 확률이 낮은 쪽보다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변화'로 느껴진다.

4) 정보 기술의 영역에서는 주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유용한 판단을 내릴 때에 이와 같은 열역학적 엔트로피 개념을 차용한 '정보 엔트로피' 개념을 활용한다.

[맥락 짚기]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다. 분명 '열역학적 엔트로피'와 무슨 관련이 있을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문단2 : 정보량

1) 정보 기술의 영역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 발생 확률이 낮은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정보보다 더 유익하다고 간주한다.

⇒ 비유하자면 우리를 더 깜짝 놀라게 하는 정보일수록 유익하다고 본다는 얘기다.

2)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 것이다.'와 같은 정보는 확률이 1인 것을 예측하는 것으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0이다[→ 무조건 발생하므로 우리를 전혀 놀라게 하지 않는다.].

⇒ 해는 어제든 오늘도 동쪽에서 뜨고 내일도 동쪽에서 뜬 거다. 게다가 당연히 해는 아침에 뜬다. 그러니 이 사건에 관한 정보는 딱히 유익하지 않다[→ 정보량이 0이다.].

3) 반면 '오후에 개기 일식이 있을 것이다.'와 같은 정보는 매우 큰 정보량을 지닌다.

⇒ 개기 일식은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훨씬 낮은 만큼 훨씬 더 유용한 정보다. 하물며 '오후에' 개기 일식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는 더더욱 유용하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다.

-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사건 : 사건 발생 확률 ↑ ⇔ 정보량 ↓
- 오후에 개기 일식 발생하는 사건 : 사건 발생 확률 ↓ ⇔ 정보량 ↑

4) 전자는 경우의 수가 1[→ 그 상태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은 사건,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인 정보가 알려진 것이어서 정보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이고, 후자처럼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정보가 알려진 것은 정보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이다.

⇒ 아직 '정보 엔트로피'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 상태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 때 '정보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얘기다. 문단1의 '열역학적 엔트로피'를 떠올려야겠다.

5) 이처럼 사건의 정보량은 사건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의 확률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발생할 확률이 P인 사건의 **정보량**을 $\log_2(1/P)$ 로 정의한다.

⇒ 따라서 어떤 사건의 정보량은 사건 발생 확률이 낮을수록 커진다.

3)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 그런데 왜 로그 함수를 사용하느냐면

6) $\log_2(X)$ 형태를 띤 로그 함수는 2^2 , 2^3 과 같은 지수 형태의 수들로 이루어진 곱셈식을 간단한 덧셈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며, $\log_2(X)$ 의 값은 $X=2^n$ 일 때의 n값과 같다.

⇒ 뭐 그렇단다.

[참조] 이렇게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사용하는 정보 엔트로피를 '비트 엔트로피'라고 한다.

7) 예컨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1/2이므로 그 사건의 정보량은 $\log_2(2)$ 의 값인 1[→ $\log_2(1/(1/2)) = \log_2 2$]인 것이다.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올 사건[→ 1/6인 확률의 사건]의 정보량은 약 2.6[→ $\log_2 6$]으로 계산되어, 동전을 던지는 경우보다 크다.

⇒ 예시 챙기자.

사건 발생 확률 P ↑ ⇔ 사건의 정보량[→ $\log_2(1/P)$] ↓

문단3 : 정보 엔트로피

1) **정보 엔트로피**의 값은 동전을 던져 나올 수 있는 두 사건처럼 각 확률을 모두 더한 값이 1인 상황[→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고려하는 상황]에 대해, 각 사건의 확률[→ p_i]과 그 사건의 정보량을 곱한 후 모두 더한 값[→ $\sum_{i=1}^n (p_i \times \log_2(1/p_i))$]으로 정의된다.

⇒ 한마디로 정보 엔트로피는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을 합친 '정보량의 기댓값'[→ 확률 × 정보량의 총합]이라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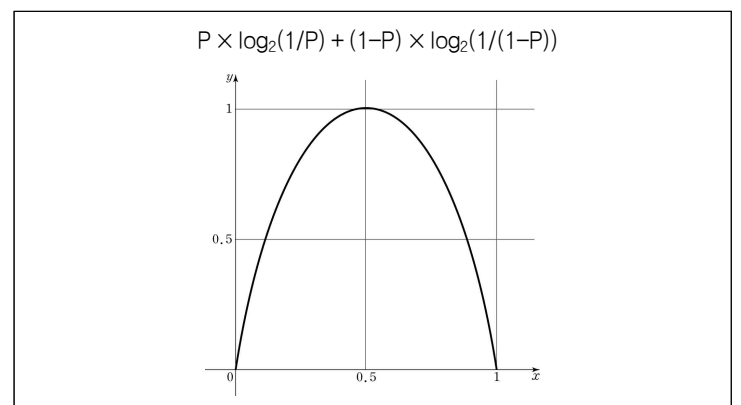
[주목] 한 사건의 정보량이 높은지는 정보 엔트로피값이 높은지와 별로 상관이 없다. 어차피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은 낮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정보 엔트로피값은 언제 최대가 될까?

2) 동전의 모양에 결함이 있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3/4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1/4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정보량은 약 0.4[→ $\log_2(4/3)$]이고, 뒷면이 나오는 사건의 정보량은 2[→ $\log_2 4$]이므로, 이 상황의 정보 엔트로피값은 $(3/4) \times 0.4 + (1/4) \times 2 = 0.8$ 이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3) 이[→ 0.8]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1/2로 동일한 상황의 정보 엔트로피값인 1[→ $(1/2) \times 1 + (1/2) \times 1$]보다 작은 값이다.

[참조]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P라 하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1-P)$ 가 된다. 따라서 정보 엔트로피값은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나아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다. P가 1/2일 때, 즉 P와 $(1-P)$ 가 동일한 값이 될 때 정보 엔트로피값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처럼 정보 엔트로피는 모든 사건의 확률이 동일할 때에 가장 큰 값을 지닌다.

[주목] n 개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정보 엔트로피는 각 사건의 확률이 $1/n$ 이 될 때 가장 큰 값을 지닌다.

문단4 : 교통 혼잡 추적 시스템

1) 정보 엔트로피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교통이 혼잡한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교통 혼잡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맥락 짚기] ‘정보 엔트로피’의 기술적 원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는지에 주목해야겠다. 바짝 긴장하자.

2) 이 시스템은 일부 차량들로부터 특정 구간[→ 교통 혼잡 여부를 판단하려는 구간]을 지날 때의 **속도 정보**를 취합한다.

⇒ 여기까지는 괜찮다.

3) 이를 통해 차량들의 **평균 시속**[→ 차량들의 속도 정보의 합/차량들의 수]을 구하면 교통 체증의 발생 여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의 평균 시속이 60이라면[→ 평균 시속이 충분히 빠른 경우]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맞다. 한마디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판단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평균 시속이 충분히 빠르면 그만이다.

4) 그런데 특정 시간대에 취합된 5개 데이터의 평균 시속이 30이더라도 [→ 평균 시속이 충분히 느린 경우], ……

⇒ 반대로 ‘평균 시속이 충분히 느린 경우’라면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

5) …… 5개 데이터 모두 시속이 30으로 같아서 (30, 30, 30, 30, 30)인 경우와 (5, 40, 25, 15, 65)인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차량 간 시속의 차이가 큰 상황은 교통 체증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목] 문제의 핵심이다. ‘평균 시속’이 똑같이 30이라 하더라도 전자는 교통 체증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후자는 교통 체증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평균 시속’만으로는 교통 체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 평균 시속이 충분히 빠른 경우 : 교통 체증 발생 X
- 평균 시속이 충분히 느린 경우 : 교통 체증 발생 ?

문단5 : 정보 엔트로피의 응용

1) 이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차량에서 제공한 속도 정보마다 발생할 확률을 (해당 차량의 시속/수집된 모든 차량의 시속의 합)으로 간주한다.

[Rew] 여기서 ‘속도 정보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은 문단2와 마찬가지로 ‘속도 정보의 정보량’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 특이한 발상이다. ‘속도 정보의 발생 확률’을 모든 속도 정보들 중에서 그 속도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어떤 차량의 ‘속도 정보의 발생 확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 느릴수록 낮아지게 된다.

다른 차량에 비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림
= 속도 정보의 발생 확률 ↓ ⇨ 속도 정보의 정보량 ↑

2) 이렇게 구한 확률들을 토대로 주어진 속도 정보들에 관한 정보 엔트로피값을 구했을 때, 모든 차량의 시속이 30인 경우처럼[→ (30, 30, 30, 30, 30)인 경우처럼] 평균 시속이 낮으면서 정보 엔트로피값이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만, 차량들이 일정하게 느리게 이동한 것이므로 교통 체증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목] 중요한 결론이다. 문단3에서도 설명했지만 ‘정보 엔트로피’는 모든 사건의 확률이 동일할 때에 가장 큰 값을 지닌다. 따라서 모든 차량의 시속이 동일한 경우[→ 모든 ‘속도 정보’의 발생 확률이 동일한 경우] ‘정보 엔트로피’의 값은 가장 커진다.

차량들 간의 속도 차이가 없음
= 모든 차량들의 ‘속도 정보’ 발생 확률이 동일함
⇨ ‘정보 엔트로피’가 가장 높음

[Rew] 이는 비유하자면 문단2-3)에서 ‘오후에 개기 일식이 있을 것이다.’와 같은 사건이 알려지는 경우의 정보 엔트로피값에 해당되겠다.

3) 이와는 달리 평균 시속이 높으면서 정보 엔트로피값이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 다양한 차량들이 다양한 속도로 평균적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경우]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문단4-3)에 대한 설명이다.

4) [평균 시속이 높은 경우든 낮은 경우든] 정보 엔트로피값이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 요인들로 인해 차량들 간의 속도 차이가 큰 상황이다[→ 어쨌든 교통이 혼잡한 상황은 아니다.].

⇒ 문단4-5)의 (5, 40, 25, 15, 65)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다.

‘교통 혼잡 추적 시스템’ 입장에서는 교통이 혼잡한 상황인지만을 파악하면 그만이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주목] 마지막으로 ‘교통 혼잡 추적 시스템’의 판단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